

SOCIETY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광산구,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 749건 적발 2억1800만원 부과

광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749건에 2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설치 규정이 마련되자, 4차례에 걸쳐 각 정당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설 명절 연휴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광산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지난 2월초 광주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 61건(1건당 32만원)에 대해 1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민주당 13건, 자유통합당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등 지방의원도 다수 포함되었다. 한 정치인의 경우 600만원에 육박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치료 인프라 확충...‘아시아 암 허브’로 도약”

민정준 화산전남대병원장 취임 1주년

첨단장비 도입·연구역량 강화...미래 의료환경 대응 ‘세계 100대 암 병원’ 목표...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암은 서울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암 치료 선도 병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민정준 화산전남대학교병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정준 병원장은 취임 후 의정 갈등 속에 지역 의료 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다. 연구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통해 ‘세계 100대 암 병원’ 반열에 오를 브랜드 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지역 암 환자들을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병원으로서 지역을 넘어 국가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

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산전남대병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한 병원으로 성장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암 병원’ 300위 내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순위는 계속 상승해 지난해 116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전체 병원 평가에서 비수준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한 게 밑바탕이 됐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SP’를 도입해 고난도 수술 역량을 강화, 지역민에게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화산전남대병원은 최근 누적 로봇수술 20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암 치료 분야에서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주요 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진료 역량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연구중심 병원으로의 도약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암 치료 연구부



민정준 화산전남대병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암은 서울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암 치료 선도 병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만한 연구는 ‘박테리아를 활용한 암 면역 치료제 개발’로,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임상 종양학’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잇따라 소개되기도 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암 조기진단과 치료법 연구, 간 섬유화와 간암 발생 기전 규명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전남대 의대는 전통적으로 의학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다. 최근 3년

간 교수 1인당 국제연구논문 점수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다”며 “지방의 대가 수도권 의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아직 지방의 의대가 살아 있고, 전남대는 지방의 명문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연구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래의료혁신센터를 통해 임상시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래 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료 혁신포럼도 열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세계 100대 암 병원’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어게인 2004’라는 슬로건 아래 ‘도전과 열정으로 생명의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의료기관’이란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특히 아시아 암 진료와 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암 진단과 치료 분야는 최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역 최초로 양성자치료기, 알파입자가속기와 같은 대형 의료장비를 도입한다면 아시아 최고의 암 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부지 내 미래형 디지털 항암센터 신축과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 전문가 양성의 요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산전남대병원의 지난해 입원 환자 중 암 환자 비율은 84.2%다. 암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질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며 “암은 서울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기며 계속 성장하고, 보다 나은 인프라 확충으로 ‘아시아 암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희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5.2.(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페스티벌, 축하공연 등

제3회 남도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
5.2.(금)~5.3.(토) 보성공설운동장
합창대합창, 축하공연 등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3.(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총, 학로, 10km, 5km

제21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3.(토)~5.5.(월)
웅치면 용반리 일림산

제3회 보성대일리콘서트
5.3.(토)~5.5.(월)
보성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4.(일)~5.6.(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민족민속악, 고수, 장구, 주모리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5.5.(월) 한국차문화공원
민속놀이, 체험, 놀이 등

2025.5.2. (금) ~ 5.6. (화)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읍 일원

보성 지(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경연, 공연 등

주최/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인력개발원



‘함께 그린, Green 서구 탄소중립 실천단’ 결단식 19일 광주 서구청 들꽃홀에서 열린 서구새마을회 ‘함께 그린, Green 서구 탄소중립 실천단’ 결단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배정숙 서구새마을회장 및 새마을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대광역고 통학로 불편’ 광주교육청 중재로 해결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컨테이너 4개월 만에 철거 시교육청, 흥북학원 임시이사화·토지 소유주 중재

광주 대광·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은 컨테이너가 4개월 만에 철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에 설치됐던 컨테이너가 19일 철거돼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광역고·서진여고 통학로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양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대광역고와 서진여고의 학교법인인 흥북학원과 통학로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등·하교 불편이 4개월

째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흥북학원 임시이사화, 토지 소유주와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해왔다.

지난 12일에는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8일에는 교육청, 흥북학원 임시이사화, 토지 소유주 등 3자가 만나 컨테이너 철거 등을 의논했다. 특히 흥북학원 임시이사회가 4월 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문제가 다시 발생하



대광·서진여고 통학로를 가로막은 컨테이너.

지 않도록 흥북학원의 법인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흥북학원 임시이사회는 법무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법 내 정상화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법인과 협력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inus@gwangnam.co.kr

서구, 업소 식품별 표시사항 안내판 배부

광주 서구가 위생 수준 향상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맡을 건넸다. 서구는 지역 최초로 즉식 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별 표시사항 안내

판을 제작·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총 460개 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별 표시사항 안내

내판 배부와 함께 영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성 방법 등을 현장에서 지도·안내한다. 특히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 할 원재료명, 소비기한 등 식품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한다. 윤용성 기자